

광주 도심 5·18 폼페이 정당 현수막...막을 방법도 없다

운암동·서구 서창동·광산구 무진대로 등에 내걸려 '눈살' 시, 대법 판결에 5·18 왜곡 정당 현수막 제한 조례 삭제

최근 광주시 북구 운암동과 서구 서창동, 광산구 무진대로 등지에 '5·18 헌법수목 절대 반대, 국민 명령이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렸다. 지난 14일 '가가호호 공명선거'가 내건 정당현수막이다. 당 관계자는 "5·18은 김일성의 지시로 북한군이 개입해 일어난 사건이며,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를 민주화로 둔갑시키는 바람에 현재 여야 가릴 것 없이 우리나라가 북한 공산당 세력에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북한이 개입해 일어난 사건을 헌법 전문에 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현수막 게재 이유를 밝혔다.

5·18을 폼페이하려는 의도를 갖고 게시한 정당현수막이 버젓이 광주 곳곳에 설치되고 있지만, 앞으로 이같은 현수막을 제재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 광주시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5·18 비방·폄훼 정당현수막을 제한하던 광주시 조례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지난 19일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다. 개정안에서는 기존 조례에 있던 5·18 비방·폄훼 금지 조항을 담고 있는 제12조의 3 '정당 현수막에 대한 표시 방법'을 전부 삭제했다. 대신 제12조 '현수막의 표시방법'에 '누구든지 현수막 내용에 5·18민주화운동을 비방하거나 폄훼하는 내용을 표시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문제는 신설 조항은 일반적인 현수막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최근 판결에서 "정당 현수막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서 규격, 표시·설치 방법 등을 정하고 있으므로 광주시 조례로 제한할 수 없다"고 판시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공여자책으로 지난달 1일 조례를 개정해 제12조 '정당현수막의 표시 방법 등'에 5·18 비방·폄훼 금지 조항만 남겨놓았으나, 결국 제동이 걸렸다.

조례가 상위법을 위배하고 별도의 제한을 하고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이후 옥외광고물법상 정당현수막 내용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졌고, 지자체로서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됐다"며 "5·18 비방·폄훼가 담긴 정당현수막이 걸리면 다른 법을 적용하기 위해 선관위 등에 의뢰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차선책으로 광주시는 5·18왜곡차별법을 강화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법상 5·18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대상 중 하나인 '출판물'을 '현수막'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취지다. 조례 개정으로 인한 우려 목소리도 크다. '정당한 정당활동'을 핑계로 5·18을 왜곡·폄훼하는 내용을 실은 정당현수막이 광주 곳곳에 내걸린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6월에는 광주시 동구 금남로, 광주 시청, 5·18기념공원 등지에 '자유민주당'이 5·18 유공자를 폄훼하는 정당현수막을 내걸어 논란이 됐다. 당시 현수막에는 '5·18유공자 명단 공개하고 가짜유공자 공무원은 사직하라', '5·18 가짜유공자



21일 광주시 북구 운암동 예술의전당 인근 도롯가에 '5·18정신 헌법전문 수목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정당현수막이 걸려 있다. /김다인 기자 kdi@

는 국민혈세를 횡령하고 있다', '보상금을 전혀 안 받고 사기죄로 엄단하라'는 등 내용이 담겼다. 5·18 관계자들은 지자체가 이같은 5·18 왜곡·폄훼 정당현수막을 제재하지 못한다면 결국 광주시민과 5·18 유족, 유공자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양재혁 5·18유족회 회장은 "매번 선거철이나 5·18 관련 이슈가 터질 때마다 크고 작은 정당에서 5·18을 모욕하고 유족들에게 상처를 줬는데, 앞으로는 이같은 일이 더 확산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며

"정당에 지나치게 유리한 법을 개정하거나 악용 소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도 "정당 이름만 빌려서 일방적으로 5·18을 비방해도 손쓸 수 없다니 황당한 일이다"며 "왜곡과 폄훼가 반복되지 않도록 타 법을 통해서라도 문제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는 다음달 9일 까지 개정안에 대한 이의신청 등 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태풍 복상에 물놀이장 조기 철거 제9호 태풍 '종다리'가 북상으로 인해 22일 운영을 마칠 예정이던 광주 북구 동강대 운동장의 물놀이 시설이 하루 앞당긴 21일 철거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전남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첫 선

광주·나주·목포·무안, 교사 인강·대학생 보조교사 수업 참여

광주·전남지역에 대학생이 보조교사로 수업에 참여하거나 EBS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가 첫선을 보인다. 교육부는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사업 1차 대상으로 12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초지자체가 신청한 1유형에는 강원 춘천, 강원 원주, 경북 구미, 경북 울진 등 4곳이, 광역지자체 단위로 접수한 2유형에는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제주 등 5곳이 각각 선정됐다.

광역지자체 내 복수의 기초지자체가 신청한 3유형에는 경남(진주, 사천, 거제), 전북(익산, 남원, 완주, 무주, 부안), 전남(나주, 목포, 무안) 등 3곳이 뽑혔다.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는 지역 자원을 활용해 사교육 경감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지역의 우수한 사교육 경감 모델을 알리고자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다.

선정 지역·학교에서는 학생 수준별 맞춤형 학습 지원, 기초학력·교과 보충 프로그램, 자기주도 학습 지원, 지역사회 연계 특색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교육 경감 모델 적용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올해 지역별로 최대 7억원을 지원한다.

지역별 프로그램을 보면, 광주의 경우 광주교대, 전남대, 조선대 출신 대학생 보조교사 약 350명이 교사와 협력해 정규 교육 과정에 주 2회씩 참여하면서 기초 수학 등 학습 보조, 상담 등으로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할 계획이다. 무안고는 EBS멘토링 스쿨이 진행된다. EBS AI(인공지능) 진단 검사 결과에 따라 수준별 온라인멘토링을 실시하고 AI 강좌추천, 멘토링 스쿨 등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무안고에서 EBS멘토링 스쿨을 우선선정한 뒤 목포와 나주 등 9개 교로 확대된다. /윤영기 기자 penfoot@연합뉴스

"농성동 지역주택조합 설립 변경인가 조속 처리" 촉구

조합원들 "서구, 인가 미뤄"

광주시 서구 농성동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21일 서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속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존 조합 집행부가 업무대행사와 공모해 조합원들을 속이고 사업비를 횡령하는 등 문제를 일으켰다"며 "총회를 열고 집행부를 새로 꾸렸으나 서구가 두 달 넘도록 인가를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농성동 지주택 사업은 광주시 서구 농성동 443-3 일대에 300여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조합이 설립돼 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들은 지난 6월 서구에 기존 집행부를 해임하고 새 집행부를 구성하는 내용의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했다. 이들은 "기존 집행부가 기존에 확보된 사업비 150여억원의 행방을 밝히지 않은 채 추가분담금 5000만원씩을 낼 것을 요구하는 등 방만한 운영을 했다"고 집행부 변경의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주택 관련 인허가권을 가진 광주시 서구의 간부 직원이 조합원에 포함됐던 것으로 드러나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해당 간부는 지난 5월이 돼서야 업무 기피 신청을

내고 농성동 지주택 관련 업무에서 배제됐다. 광주시 서구는 A 과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다. 농성동 지주택 조합장 B씨는 "지난달 외부 회계 감사를 거쳐서 150억원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했으며, 고소당한 건에 대해서도 결백하다"며 "조합장 변경은 요건이 맞지 않아 통과되지 않고 있는 것뿐이며, 일부 조합원들이 이런 개입을 하려고 이 야기를 부풀리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들은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용역자 등 관계자들을 사기, 횡령,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세월호·이태원 참사 추모...남구 '밤에도 빛나는 길' 설치

광주시 남구가 푸른길 공원에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조형물을 설치했다. 남구는 "도시공원의 안전한 이용을 바라고 안전사고로 희생된 분들을 기리는 의미에서 백운광장 주변 푸른길 공원에 야간 경관조명 시설을 갖춘 조형물을 설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형물 설치에는 보행자 통행 안전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시행한 야간 경관조명 개선 사업의 하나로 진행됐다.

설치된 조형물은 노란색과 보라색 리본모양의 2개의 조명시설로 구성됐다. 조형물 앞에 세워진 추모비에는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않겠습니다! 문구와 함께 희생자 모두의 이름이 새겨졌다. 리본 조형물 조명을 켜는 시간은 일몰시간에 따라 다르다 현재 여름철(6-8월)에는 오후 7시 40분부터 다음날 새벽 5시 30분까지 산책로를 밝힌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